

# 1990년대를 맞으면서

## I

이제 1990년대가 시작되었으며, 21세기가 성큼 눈앞에 닥쳐오고 있다.

1990년대는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우선 행정 기구의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환경청시대가 막을 내리고 환경처시대가 시작되는 것이며, 입지측면에서도 본격적인 다법화시대를 열것이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1990년대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도 더욱더 고도화할 것이며 또한 우리 사회는 본격적인 대량소비시대로 접어 들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1980년대가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의식의 개화기 이었다면 1990년대는 국민의 환경의식이 성숙기에 접어 들 것이다.

1990년대에도 우리나라에 있어서 환경문제의 양상은 현재와 비교하여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천의 오염과 대도시와 공단지역의 대기오염. 그리고 폐기물의 처리문제는 역시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그외에도 해양오염대책과 지하수오염의 규제 등의 여러 문제가 강도 높게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서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차원으로 전개되는 환경보호문제에 본격적으로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오존층의 보호는 물론이며 산성비에 관한 규제, 지



이상돈 / 중앙대학교  
법대교수·법박

역적 해양오염의 규제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것은 거의 확실하다.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 뿐 아니라 국내의 일각에서 거세게 일고 있는 반공해 및 반핵운동등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타격을 입힐 우려가 있는 만큼 기존의 환경오염 피해자는 물론이고 환경피해예상지역에 대하여는 사전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짧은 지면에서 이처럼 광범위한 환경문제를 논의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그러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다만, 지금껏 상식적이지만 도대체 지켜지고 있지않은 다음 몇가지 문제는 1990년대를 맞아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었으면 한다.

## II

첫째로 강조하고 싶은것은 에너지의 절약이다.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이지만 에너지의 과소비는 환경파괴의 주범이다. 핵에너지의 위험성, 그리고 화력발전소의 엄청난 대기오염과 폐기물 등을 고려하면 에너지의 과소비는 모든 문제의 시작이다. 우리사회의 큰 문제는 어느덧 에너지 과소비형 사회로 접어들었으면서도 이를 억제할 만한 제도적 장치를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실내온도가 25℃나 되는 겨울철의 호텔과 대형빌딩, 그리고 고층아파트는 실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중대형차 크기도 역시 문제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은 80년대의 저유가에 힘입은 것인데 90년대에는 고유가시대가 다시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느니 만큼 이에 대비하여서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의 차원에서 유가에 환경오염 부담금을 추가로 전가하여서라도 소비부문의 유류와 전력소비를 억제하여야 할 것이다.

## III

둘째로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오염물질의 저감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환경행정과 환경법규는 배출구에서의 오염물질 배출억제에 주안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오염물질의 발생 그 자체를 저감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경직적인 배출기준 위주의 환경규제행정은 기술규제 위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산업정책의 측면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 IV

세째로 당부하고자 하는 바는 식품위생행정, 산업안전행정, 그리고 환경행정의 유기적인 연관체제의 확보이다. 이는 주로 현대의 화학공학의 괄목할 만한 발전으로 인하여 다양한 새로운 화학물질이 산업공정에 사용되고 식품과 의약품에 이용되며, 또한 그 결과로 폐기물의 형태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데서 비롯되는 것인데, 동일한 물질의 사용 목적 또는 처리장소에 따라서 소관 행정부서가 다르고 이에 따라서 비능률적인 행정대책이 취하여 지는데 그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처간의 협력을 담보할 수 있는 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연구와 대책 수립에 있어서의 협조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 V

마지막으로 지적하고자 하는것은 자연보호와 환경보호의 상호관련성이라 이 역시 담당행정부서도 다르고 이에관한 민간운동단체도 다른 형편이다. 사실 자연보호와 환경보호는 생태계보호라는 궁극적 목표를 향하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그 구체적인 활동은 대상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특히 개발에 관한 문제를 다룰 경우에는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특히 문제가 되는 점은 개발담당부서가 사실상 자연을 훼손하는 성향이 있는데 이를 사전에 견제할 만한 제도적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최근에 시작된 서해안 개발, 그리고 설악산과 낙산 등 동해안 지역에 성행하고 있는 콘도 건설 붐은 우리나라의 자연환경행정에 큰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데 아닌가 한다.

## VI

1990년대에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근접하느냐 또는 중진국의 수준에 안주하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를 맞게 될 것이다. 산업의 고도화와 더불어 우리사회가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는 환경보호라 할 것인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만족을 갖출 정책이 무엇보다 시급히 요구된다고 하겠다.\*